

전남 서부권

완도 연간 수산물 생산액 1조원 육박

어민소득 가구당 7500만원

전북·다시마·툰 등 돈버는 수산업 모델로

완도군의 연간 수산물 생산액이 1조원에 육박해 돈버는 수산업의 모델로 성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수산물 통계조사 집계결과 총어가 1만 618호에 8000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김·미역·다시마·툰·매생이 등 해조류 37만4400t ▲전북 7400t ▲양식어류·어선어업 1만 9800t ▲전북 종묘생산·마을어장 8400t 등 총 41만t을 생산해 8000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어가당 평균소득은 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완도 수산물의 전국대비 생산량은 ▲전북 81% ▲다시마 70% ▲툰 60% ▲미역 46% ▲매생이 40% ▲전북 종묘생산 30% ▲양식 20% ▲김 15%를 차지하고 있다. 군에서 조사한 수산물 총생산액은 산지 구매가격으로 산출한 계수로 시장가격으로 환산했을시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산산업의 활로 개척과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수산환경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미래전망이 밝은 수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산업과 해양 바이오에너지 산업, 수산 생명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어업인들의 자율의식 고취를 위한 어촌 선진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는 다도해 리아스식 해안으로 형성돼 각종 수산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해안선마다 갯벌이 있고, 연안 해역에는 해조류 숲이 조성돼 바다정화 기능을 하고 있다. 완도 바다면적은 육지 면적의 12.6배인 4939.6km, 해안선은 전남의 13.5%인 838.26km다. 3만5258ha의 어장이 개발돼 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출근길 눈 치우기

목포시 공무원과 환경미화원들이 8일 새벽 용당동 도로변에서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목포시는 동절기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제설작업에 발 빠르게 대처함으로써 시민들의 아침출근길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안전기준 미달 외국적 선박 "출항 정지"

목포 항만청 지난해 입항 선박 811척 중 125척 통제

목포 지방항만청(청장 최희철)이 지난해 전국에서 '항만국 통제'(Port State Control)를 가장 엄격하게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목포항만청은 지난해 관할해역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 811척 중 125척에 대해 '항만국 통제'를 시행, 88%에 달하는 111척에서 결함을 발견했다. 목포 항만청은 이 가운데 ▲산적화물선 3척 ▲일반 화물선 6척 ▲냉동운반선 3척 등 총 12척(평균 선령 24년)은 출항정지 처분을 하고, 나머지 선박 99척은 즉시 시정 및 기한내 시정토록 조치했다. 지난 한해 동안 전국 12개 항만의 평균 '결함 지적률'과 '출항 정지율'은 각각 84.1%, 4.3%인데 비해 목포 항만청은 88%와 9.6%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1월 목포항 삼학부두에 석탄을 싣고 입항한 파나마 국적의 산적화물선 파사호(2만6194t)의 경우 32일의 선령으로 선체에 심각한 부식과 균열, 파공이 발견돼 출항정지 조

치된 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 때문에 선박수리를 포기한 채 해체됐다. 최희철 목포 항만청장은 "올해도 점검목표를 지난해보다 10% 낮은 105척으로 설정해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항만국 통제'는 항만국적이 자국의 관할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국제 협약에서 정한 안전기준의 미달 여부를 점검해 결함 사항이 발견될 경우 출항정지 등 필요한 안전확보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ilee@

남약신도시 옥암지구 부주동 주민센터 개소

남약신도시 옥암지구

부주동 주민센터 개소

남약신도시 옥암지구에 자리한 목포시 부주동 주민센터가 지난 7일 개청식(사진)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부주동 주민센터는 내년에 본 청사가 완공되기 전까지 남약1로 42번길 1(옥암푸르지오 아파트 앞)에 마련됐으며, 민원실과 상담실·회의실·동대분부 등을 갖추고 있다. 신설된 부주동은 17개동, 80개반, 인구 1만8000여명이며, 법원, 검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밀집돼 있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전 직원이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남약의 대표적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함평공공도서관

책읽기사업 2년연속 선정

함평 공공도서관(관장 임종문)은 국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주최의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감사로 지원과 아동도서(210만원 상당)를 기증받게 된다. 함평 공공도서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정보문해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책 만들기 ▲신문 활용하기 ▲독서치료를 활용한 난화 스토리텔링 등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종문 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어린이들이 무한한 상상력과 미래를 향한 꿈을 키울 수 있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해남군 귀농인 정착 돕기 나선다

올 3억 7000만원 투입

주택 수리비 등 지원

해남군이 귀농인 정착지원에 적극 나선다. 해남군은 올해 3억70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워 귀농인에 대한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하고 농업인단체 사업, 귀농인 조기정착 공동사업 등을 추진한다. 군은 귀농인이 해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을 선도농가와 관내 농업작목반과 후견단체 결연을 추진하고, 귀농인 모임을 구성해 상호 정보교환이 쉽도록 지원한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또한 귀농 성공사례를 발굴해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귀농인 성공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농업분야 창업과 유통, 마케팅 등에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2000만원 내외로 모두 2곳에 지원하며, 지원대상자는 해남에 귀농한지 2년이상 ~ 5년 미만인 주민이다. 이와 함께 올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는 모두 20대에 1억원이 지원되며, ▲귀농인 농업인단체 사업 1억4000만원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6700만원 등이 지원된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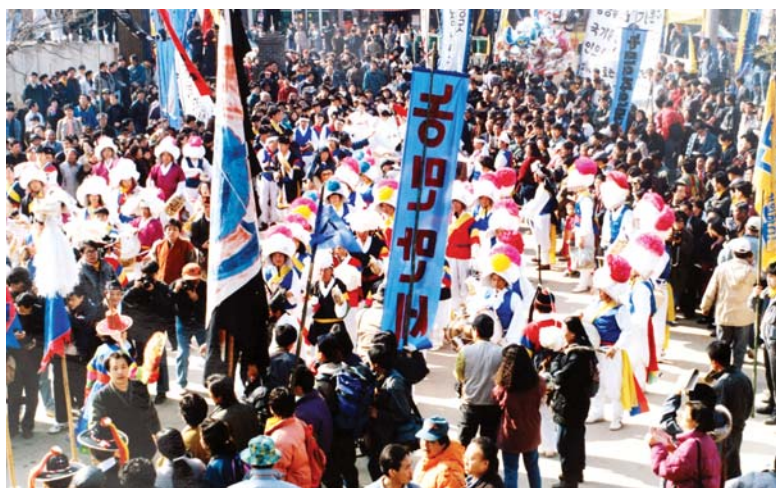
동학 혁명 118주년 고부봉기 재연

15일 정음 이평면 말목장터서 기념제

"매일 난망(亂亡)에 모여서 말하되 '났네 닐어 난리가 닐어', '에이 참 잘 되었지 그냥 이대로 지나서야 백성(百姓)이 한 사람이나 어디 남아있겠나'하며 기일(期日)이 오기만 기다리더라." 1894년 2월 15일(음력 1월 10일), 전통준을 중심으로 한 고부군 동학교도와 농민들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화정에 항거하며, 사발문문 거사계획에

이러 말목장터에 모여 결의를 다진 후 고부관아로 달려간다. 동학 농민혁명의 시작이다. 정음시는 동학농민혁명 제118주년 을 맞아 오는 15일 이평면 예동마을과 말목장터, 고부초등학교에서 고부봉기 기념제를 개최한다. 고부봉기기념제 추진위원회(위원장 김동주)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충북대 신영우 교수의 '동학봉

민혁명과 고부봉기의 의의'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으로 시작된다. 2부는 예동마을에서의 결군을 시작으로 말목장터에 집결한 후 기념식을 가지며 1894년 2월 고부봉기를 재연한다. 당시 예동마을을 중심으로 인근 마을사람들이 말목장터에 집결한 뒤, 지도자 전봉준이 감나무 밑에서 연설한 뒤 고부관아로 향하는 모습을 재연하는 것이다. 이어 제3부는 말목장터에 모인 군중이 2개조로 나누어 고부관아가 있었던 고부초등학교로 이동해 점령행



사를 재연한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기념제를 계기로 관련 단체와 지역민이 함께하는 기념제의 정례화 추진, 동

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스트레스 확 날리세요

향상에 좋은 짐볼(gym ball) 운동을 하고 있다. 짐볼 운동교실'을 시작으로 골다공증 예방·기공체조 교실과 중증예방·요가교실 등을 차례로 운영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정음시 학생들이 상동 샘골보건지소를 찾아 스트레스 해소와 근력 향상을 위한 짐볼(gym ball) 운동을 하고 있다. 샘골 보건지소는 '짐볼 운동교실'을 시작으로 골다공증 예방·기공체조 교실과 중증예방·요가교실 등을 차례로 운영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전주 '대형마트 의무휴업' 찬·반 교차

마트 입주상인들 "우리도 지역 소상공인" 반발

재래시장 "늦었지만 다행, 상생위해 더 강화"

전주시의회가 지난 7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매월 2차례 일요일에 의무휴업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자 전통시장 상인과 대형마트 입주상인간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소상공인과 시민단체는 크게 반기고 있는 반면 이를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내 대형마트 입주자들은 8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형마트에 입점한 상인들도 재래시장 상인과 똑같이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며 "일요일 의무휴업은 막대한 매출감소를 가져와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의무휴업으로 인해 매출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0%

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형마트 입점자들이 부분적으로 피해를 보겠지만 고사 위기에 처한 영세상인에 비해 바가 아니다"며 "상생을 위해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참여연대도 "근로 건강권보호와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강력한 후속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남원시보건소 전국 최초 폐암 검진 실시

남원시는 올해 전국 보건소 최초로 폐암 검진사업을 실시한다. 남원시는 최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기(2011~2014년) 지역보건 의료계획 2012년 통합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통합 시행계획은 남원시 건강문제

인 '높은 폐암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예방사업'을 비롯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건강검진사업 등 보건소 17개 개별사업을 총 망라한 보건의료 분야 종합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뉴스 브리핑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군산시 시온의 집 선정

군산시는 지난해 9월 산림청 녹색사업단에서 시행한 '2012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 응모에 시온의 집이 선정돼 녹색자금 1억 1000만원을 지원받아 녹색복지 숲을 조성한다. 시는 '시온의 집'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주제를 설정해 녹지공간

과 휴식시설 등이 포함된 녹색복지 숲을 조성하고 이를 향시 개방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됨은 물론 방문객들의 복지향상, 건강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규식기자 nogusu@

김제농기센터 토양 미생물 제제 등 공급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는 올해 농업인들에게 유용한 토양 미생물 제제 380t과 가축 소화율 향상을 위한 축산용 생균제 80t을 공급한다. 미생물 제제는 보조 사료로 등록돼 있는 균주로 가축이 음용할 경우 소화가 잘 될 뿐 아니라 천연 항생물질이다

랑 분비해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센터 기술보급과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오는 17일부터 실시되는 유용 미생물 교육(2시간 소요)을 이수해야 한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정음시, 소상공인진흥원과 나들가게 17곳 지원

정음시는 소상공인진흥원 정읍센터와 공동으로 올해 '나들가게' 17개소를 지원한다. 정음시는 지난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나들가게' 지원내용과 사업 수행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했다. '나들가게'로 선정되면 ▲시설개선과 경영혁신을 위해 간판교체 ▲내부 인테리어 ▲마케팅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영세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을 대상으로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고창군 초·중·고교에 관광안내책자 배포

고창군은 올해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위해 이달 안에 전국 초·중·고교 9000여 곳에 관광안내 책자를 배포한다. 관광안내 책자는 고인돌유적지와 '탐사터 습지'로 등록된 고창갯벌 등 고창지역 주요 관광지

에 대한 소개와 음식점·숙박업소에 관한 정보를 담았다. 또 관광지도와 수학여행지 추천코스, 선운사 체험, 꼭 가야 할 관광지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설명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